

[21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느다
 최령(最靈)흔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
 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느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흐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슨 바위 사귄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깃흔 골짜기에 알 이 있어 츠즈오랴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혀야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년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하야 내 어덕 옮아가리오
 산 도쿄 물 도흔 골에 삼긴 대로 늘그리라
 <제6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 최령흔 오인: 가장 신령스런 우리.
- * 직립불의: 꼳꼳이 섬.
- * 고모진태: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 탁연직립: 빼어나 곧게 섬.
- * 왕기순인: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
 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
 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나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
 셧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덕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
 기는 듯하다. 옷깃을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
 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던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흙에 묻힐지 기약 없
 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
 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흥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시고 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
 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
 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
 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 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
 점이 찍힌 천도형의 연적이다.

고인과 고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
 뿐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

다.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
 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찾중 하나, 슬병 하나**라
 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
 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운(德潤)이 있
 는 것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
 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
 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
 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자
 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
 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만 표지도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
 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해보각사의 「서장(書
 狀)」**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
 로 마침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
 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親蹟)인진 모르나 전
 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있다. 「서장(書狀)」
 은 워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제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 일자
 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
 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거리로만 보는 것
 은 속단이다.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
 다. 직업적이어서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賞心樂
 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한다.

- 이태준, 「고완」 -

- * 풍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
- * 입정: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 사란: 여러 개의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 도일: 세월을 보냄.
- * 상심낙사: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1) 2017년 3월 시행, 201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21-23

22.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23.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찰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

(가)

조선 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시(四時歌)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래들을 뜻한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사시가는 이러한 관심과 중국 한시 및 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는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정서 등을 노래한 월령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월령체는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시가는 한시나 가사, 연시조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 적합했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에 따라 사시는 한 달의 네 때인 삭(朔), 현(弦), 망(望), 회(晦)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루의 네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사시가는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의 복합적인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춘(아침→낮→저녁→밤)]→[하(아침→낮→저녁→밤)]...'과 같이 일 년 사시의 흐름 속에서 각 계절마다 하루의 사시를 모두 포함하거나, '[춘:아침]→[하:낮]→[추:저녁]→[동:밤]'과 같이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상 전개 양상이 단순하든 복합적이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시가에서 자연은 이러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모습은 당대의 현실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되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隱者)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이든 정치 흐름에서 도태되어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이든 향촌에서 농민과 함께하던 사족(士族)이든 자연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시가는 사시 순환의 질서 속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A]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러 띄워 던져 두고
-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추(秋)> -

가령, 사시가 계절 연시조의 첫 작품인 위 시조의 경우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 자연에서 계절별로 느끼는 흥취와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2) 2017년 4월 시행,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8-42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봄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희는 밧출 가니
 뒷 피히 움이 튼 약조를 언지 캐러 흥느니 <1수>

샷갓에 도롱이 낚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훑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게논 어이 느리논고
 술 너자 제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피혀는 새가 굶고 들히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비에 샷갓 쓴 저 **① 늙은이**
 낙덕에 재미가 김도다 눈 김픈 줄 아는가 <4수>

- 황희, 「사시가(四時歌)」 -

(다)
 양파(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먹여 논밭 갈게 흥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던 후의 녹음(綠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들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ㄱ을히 느껴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흥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흥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피히 눈이 딘다
 모침(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콩죽 니것느냐 먹고 자러 흥로라 <동(冬)1>

이바 **② 안희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스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앓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양파(陽坡): 양지쪽 언덕.

3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시의 순환성은 무한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② 유기적인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③ 사시가는 조선 시대 이전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④ 사시가와 월령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⑤ 사시가는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39.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40.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나머지 수에서는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 년의 사시를 드러내고 있군.
 ② (나)에서 <1수>부터 <4수>에 걸쳐 일 년 사시만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초기 사시가의 단조로운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③ (다)의 <하1>에서는 ‘녹음’과 ‘낮들’을 통해 여름날 낮의 이미지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다)의 <춘2>와 <동1> 각 수에서는 한 계절 안에 하루의 사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가 움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41. ㉠에 주목하여 [A]와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는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대부층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② [A]에서 ‘역군은(赤君恩)이 샷다’에는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인식이 드러난다.
 ③ (나)에서 ‘그물 잡고’, ‘산전을 훑매’는 모습에는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대부층의 관점이 나타난다.
 ④ (다)에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에는 자연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드러난다.
 ⑤ (다)에서 ‘비즌 술 걸러라’에는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나타난다.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는 모두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③ ㉠과 ㉡는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대상이다.
 ④ ㉠은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⑤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고 ㉡는 화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률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 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갓흐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쌌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뒤라셔 삼기신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몬져 아니
 한 마암에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음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밭 갈라 간 데 밭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주세붕, 「오륜가」-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공공하기 일쑤요, 개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만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어미에게서, 비부(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써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이곡, 「차마설」-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5.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공공’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3) 2017년 6월 시행,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 42-45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⁴⁾

(가)

유배(流配) 시가는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시가들을 총칭한다. 유배 시가는 고려 시대 정서의 「정과공곡(鄭瓜亭曲)」을 시초로 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와 시조나 가사 등의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시조는 초·중·종 3장의 정형화된 형식 안에 유배객의 삶과 정서를 간결하게 응축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가사는 연속체(連續體)로,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유배객이 많았던 조선 시대의 유배 시가에는 정적(政敵)에 대한 원망, 결백의 호소, 정계 복귀에 대한 소망 등이 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정치적 유배객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며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유교 이념을 굳건히 지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광해군 때,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어 쓴 연시조 「견회요(遣懷謠)」에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정치적 유배객들 중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속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유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유배객은 정계에 대해 원망하거나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실적 체험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 때, 안조원이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유배되어 쓴 가사 「만언사(萬言詞)」가 그러하다.

(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쏨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맞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찻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읍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 옥식 진찬(玉食珍饈) 어데 가고 맥반 염장(麥飯鹽藏)* 대하

오며

금의 화복(錦衣華服)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鵝白結)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굽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물노라 저 농부야
밥 우회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 내어
일분(一分)은 밥쌀 하고 일분(一分)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남방 염천: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

* 맥반 염장: 보리밥과 소금장.

* 격양가: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탐화봉접: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4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사는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 ② 유배 시가가 조선 시대에 처음 창작되어 당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 ③ 유배 시가는 유배객으로서의 일상과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바를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 ④ 시조는 3장의 정형화된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정서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 ⑤ 정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유배객의 소망은 임금에 대한 충정보다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한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4) 2017년 7월 시행, 2017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3~45번

45. [A]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제3수'에는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군.
 ② (나)의 '제5수'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효와 관련하여 담겨 있군.
 ③ (다)의 '남방 엮천 저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서, 유배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배객의 사실적 체험이 나타나고.
 ④ (다)의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다)의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에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유배를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 2018학년도 9월 대수능모의평가 - 고전시가 미출제 ※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가)

삼월 삼진날, 청명절 등에 부녀자들은 인근 산천을 찾아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가사를 낭송하며 하루를 즐겼다. 화전가는 이때 지은 규방 가사로서 현장에서 창작되거나 집에 돌아간 후 지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 오거나 미리 지어 오기도 했다.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면서 문답 형식의 화전가를 낭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흥취를 공유하거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봄의 찬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추렴,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놀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이 이어진다. 그중 화전놀이의 내용으로는 '내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 부녀자의 신세 한탄, 놀이에 대한 감흥 등을 들 수 있다. [A]는 화전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A] 방춘삼월 좋은 가절 군생지물 자랑하다
 생기로운 꽃다운 풀 푸릇푸릇 싹이 돋고
 향기로운 두견화는 불긋불긋 송이 핀다
 버들막에 ㉠ **피꼬리**는 벼를 찾아 날아들고
 수풀 사이 노래하고 꽃나비 춤을 춘다
 때는 좋다 벗님네야 내 말씀 들어 보소
 이와 같이 좋은 시절 엿지 그리 허송하랴
 (중략)

일년일차 화전놀음 여자놀음 이뿐일세
 하루이틀 물림 받고 하로 물림 여흐리라
 무정풍우 밤사이에 앓가울사 꽃이 지면
 꽃을 찾아 화전놀음 무슨 흥미 잇으리오
 갑자울축 택일은 많으나 천기를 살펴보니
 일구풍화 오늘같이 대동대길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를 통한 상춘(賞春)의 흥취와 함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한스러운 심정과 현실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녀자들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화전가 중에서 독특한 구성으로 주목을 받는 「텐둥어미 화전가」는 '외부 이야기' 안에 텐둥어미의

일생담이 담긴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을 띤다. '외부 이야기'는 대체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부 이야기'는 상부(喪夫)와 개가(改嫁)를 반복하는 비극적인 삶을 산 텐둥어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척 편을** 외워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네
 그중에도 텐둥어미 벗어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중에도 **청춘과녀** 눈물 콧물 피죄하다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 웬일이오
 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B] 열네 살에 시집을 때 청실홍실 늘인 인정
 원불상리 맹세하고 백 년이나 살았더니
 겨우 삼 년 동거하고 **영결중천 이별**하니
 임은 겨우 십육이요 나는 겨우 십칠이라
 선평도골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볼꼬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C] 십육 세 요사 임뿐이요 십칠 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 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 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면 **우리 낭군** 지나가나 잇을쏜가
 잠이나 잘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D]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꾸야 입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입을 잠깐 만나
 만단정담을 다하겠더니 일장설화를 채 못하여
 ㉡ **피꼬리** 소리 깨달으니 임은 정녕 간 곳 없고
 촛불만兢兢불멸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하되 나와 백 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고

[E] 정정한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던 차에
화전놀음이 좋다 하기에 **심회를 조금 풀까** 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축처감창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듣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 걸 보아도 비창한데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텐둥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 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일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 읍내 그중 큰 집에

5) 2017년 10월 시행, 2017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2번~26번

치행 차려 들어가니 장 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비범 풍후하고
 시부모님께 현알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데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마침 단오러라
 삼백 장 높은 가지 추천을 뛰다가서
 추천 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메박으니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 작자 미상, 「덴동어미 화전가」 -

*신명 도망: 운명이나 팔자로부터 도망을 짐.

2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전가의 내용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은 창작과 향유에서 배제되었군.
- ② 화전가에서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을 배경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군.
- ③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하기 전이나 화전놀이가 끝난 후에도 창작이 가능했군.
- ④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어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하기도 했군.
- 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지기도 했군.

23. (가)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봄을 맞이한 심회를 읊음. ㉠
-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함. ㉡
- 화전놀이를 위한 경비를 추렴함. ㉢
- 화전놀이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함.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가)의 ㉠과 (나)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②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은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 ⑤ ㉠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25. (나)의 [B]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영결중천 이별'에 대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C]: 대구를 활용하여 부채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C]: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낭군'과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D]: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 '천하 만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26.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인들이 '내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풍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덴동어미'가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는 말을 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덴동어미'가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경험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화전놀음이 좋다'며 '심회를 조금 풀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대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⁶⁾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오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허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누라서 모셔 오리
지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흔 화친(和親)을 를 두고 흔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虜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호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나
이 밖에 억만창생(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낫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허야 시름겨워 호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겹불* 갖허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이정환, 「비가(悲歌)」

*요양 : 청나라의 심양.

*학가 : 세자가 탄 수.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갇힌 소현 세자를 가리킴.

*박제상 :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조구리 :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참승홀 :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탄.

*성려 : 임금의 염려. *겹불 :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럴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6·25전쟁으로 피란하다였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뾰어났다. 물을 자

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피독되어 광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었다.

[A]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퉁퉁(玲瓏)하다
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 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이병기, 「풍란」

*간죽하수문주인 : ‘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두실 와옥 : 몹시 작고 추한 집.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34. (가), (나)에 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6) 2018학년도 수능 국어 고전시가 33~37번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 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씩은 향나무 꺾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정답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전시가(2017년 3월 시행)

21. ② 23. ⑤ 24. ③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고전시가(2017년 4월 시행)

38. ⑤ 39. ② 40. ④ 41. ② 42. ③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2017년 6월 시행)

42. ④ 43. ③ 44. ② 45. ⑤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고전시가(2017년 7월 시행)

43.① 44.⑤ 45.①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고전시가(2017년 10월 시행)

22.① 23.① 24.③ 25.④ 26.④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시가(2017년 11월 시행)

33.① 34.③ 35.⑤ 36.⑤ 37.①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